

# 선재길에 살고 있는 동·식물 친구들

시선을 낮춰보아요! 작고 예쁜 꽃들과 작은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. 하지만, 친구들의 휴식을 위해 쉼!



## 나도제비난

‘오리난’이라고도 불리는 이 난은, 10~20cm정도 자라며, 꽃이 4~6월 연한 홍색으로 핀다. 고산지대에 자라는 귀한 식물이다.



## 금강초롱꽃

한국특산식물로 꽃의 형태가 종모양을 닮았고,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‘금강초롱꽃’이 되었다. 습하고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, 연한 보라색의 통꽃이 아래를 향해 피어난다.



## 노랑무늬붓꽃(깃대종)

붓꽃과 달리 흰바탕에 노랑색 무늬가 짙혀 노랑무늬붓꽃이라 불리게되었다. 오대산에서 처음 발견되었고, 오대산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.



## 긴점박이올빼미(깃대종)

몸전체가 어두운 갈색의 넓은 세로줄무늬가 있고, 고산지대의 숲속에 서식한다. 오대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.



## 큰오색딱따구리

한국전역에서 서식하나 숲이 울창한 곳에서만 생활하는 보기힘든 텃새 중 하나이다. 전나무 숲에서도 가끔 발견된다.

# 선재길 치유프로그램 Interpretive Programs

선재길 치유프로그램은 선재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.

해설구간은 약 2km로 소요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. 예약은 전화(033-332-6417)로 가능합니다.



## 연락처

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033)332-6417, 6494

소금강분소 033)661-4161

계방산분소 033)332-64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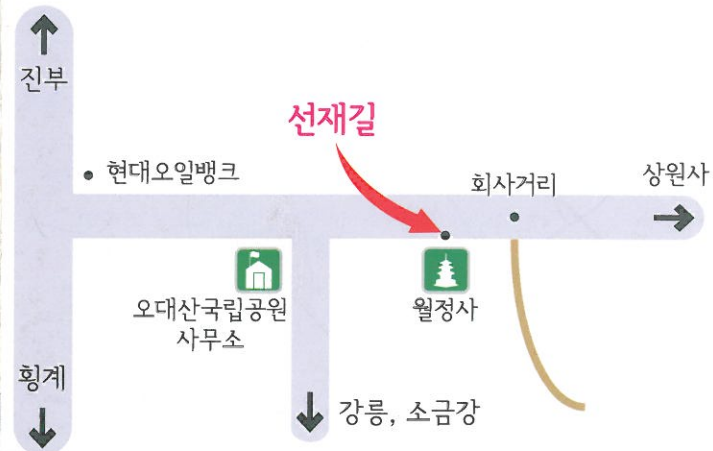
상원탐방지원센터 033)333-6742

진고개탐방지원센터 033)334-0918

## 오시는 길

자가용: 영동고속도로 - 진부IC - 월정사 - 선재길

대중교통: 진부버스터미널 - 월정사, 상원사 방면 시내버스 - 선재길



몸과 마음이 치유 되는 그 곳,

# 선재길 따라 힐링여행



선재길은 월정사 일주문부터 상원사까지 10km의 숲길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들과 불교신도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.

선재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만나고, 오대천을 품은 아름답리 숲 터널을 지나면서 다양한 동·식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



Nature, Our Future!



국립공원관리공단  
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 
ODAESAN NATIONAL PARK OFFICE

## 선재(善財)길은?

선재길은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에서 유래한 길입니다.  
선재동자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천하를 돌아다니다 53명의 현인을 만나 결국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이처럼 선재길을 걷는 이들도 한줄기 지혜의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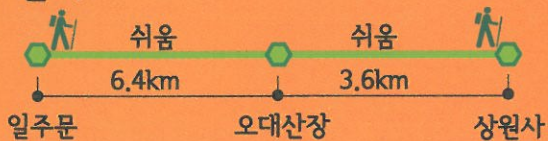
## 선재길 탐방로 안내

전 구간이 계곡을 따라 아름답리 숲 터널로 되어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탐방로입니다.

## 탐방코스(편도)

10km, 3시간 30분 소요

## 코스난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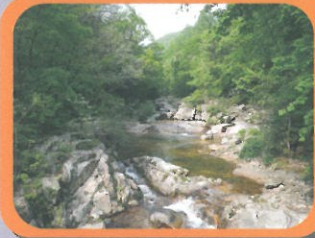
## 산행할 때 지켜야할 사항

-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.
-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합니다.
-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갑니다.
- 흡연, 취사, 야영, 임산물 채취는 금지입니다.
- 동물들을 위해 큰 소리를 내지 맙시다.



## 선재길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

선재길을 따라 걸으며 몸과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털어 버리고, 선재길만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.



### 신선암

신성한 곳이라고 불리며, 신성암이 신선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. 계곡 위쪽으로 여러 개의 작은 폭포가 아름답게 이어졌습니다.

### 자생식물관찰원

오대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식물들을 증식·복원하는 곳입니다. 식물원 내에 여러 야생화와 아담하게 조성된 치유가든도 만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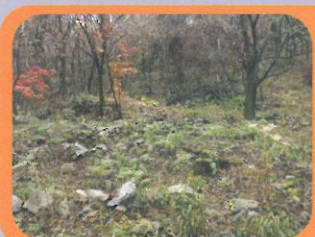


### 섬다리

통나무로 만든 다리상판위에 섬(잔가지)을 엮어 깔고, 그 위에 흙을 덮어 만든 다리입니다. 장마 때면 다리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'이별다리'라고도 합니다.

### 보메기

보름 세워 물을 막았던 곳으로 '보막이'로 불리다가, '보메기'로 불리게 되었습니다. 선재길 9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.



### 화전민터

과거 화전민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던 곳으로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. 화전민은 불로 잡풀을 제거하고 그 위에 농사를 짓는 방식을 말합니다.